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교회는 1982년 개척 이후 오늘날까지 36년 동안 '항상 기도 제목' 중의 하나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구제에 힘쓰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약속을 신뢰하여 거두기까지 행해 나가면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을 풍성한 축복으로 거둘 수 있다.

단 한 번 기도받았는데...

화상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셀리악병과 만성 빈혈을 치료받은 아르헨티나 소라자 곤잘레스 성도의 감사 편지.

"주님은 나의 축복의 통로~"

연단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진리로 변화되는 만큼 영육 간에 축복이 임한다는 이상일 집사.

만민뉴스

제837호 2018년 5월 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구제와 선행으로 주님의 사랑 전해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사랑

최근 우리 교회는 연로한 성도 위주로 220여 명에게 무료로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수년간 준비해 온 일이다. 교회 부설 구제위원회와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주의 종과 지역장·조장·구역장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돕고 있다.

김순화 성도(61세)는 “치아가 많이 상해 음식을 잘 씹지 못하고 오물오물하다가 국물과 함께 넘기니까 늘 소화가 잘 안되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네요.”라며 감사해했다.

성도 1천여 가정과 새터민, 관공서, 복지관 등에 구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 19:17)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던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었다.

‘구제’는 우리 교회 항상 기도제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7년간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가난을 몸소 체험한 이재록 목사는 교회 개척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도로 치료해 주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은 힘껏 구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왔다.

이에 구제위원회를 두고 교회 내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성도 1천여 가정에 기본 생활보조비 및 쌀

과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5년간 매월 구제금과 구제쌀을 지원받았던 조영남 집사(46세)는 “제가 교회에서 구제를 받



주사랑선교회 회원들에게 매월 생활비, 쌀, 밀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회장 홍성욱 집사(67세)는 “사선을 넘어 남한에 왔지



(77세)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식들도 못하는데,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지요.”라고 말했다.

학생 장학금 및 기타 지원 외에도 해외에 구제 선교비 전달

구제위원회를 통한 장학금 수여 외에도 이 목사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레슨비, 학원비, 교통비, 용돈, 긴급자금까지 계속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학업과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며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이재하 아동은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장학금을 지원받아 학원에 다닌 뒤로 성적이 월등히 향상됐고, 고등학교 3학년인 이지우 자매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장학금과 매월 용돈까지 지원받으면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며 고질적인 중이염도 치료받았다.

또한 이 목사는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이스라엘의 교회들을 위해 구제 선교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힘을 실어주었다. 유대인 목회자 쉐로미 아브라모브 목사는 “이스라엘 기독교계가 깨어나 부흥하고 있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재록 박사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라고 전한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는 1982년 7월 교회 개척 이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경조위원회의 장례 절차 지원, 교정 복지선교회의 재소자들 섬김, 미용인선교회의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는다는 말씀을 친정 부모님이 들으시고는 애 물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 아무 도움을 못 주었는데 너희 목사님이 부모보다 낫구나 하시며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조 집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게 된 뒤로는 축복받아 지금은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한다.

구제위원회에서는 새터민들의 모임인

만 이질감을 느끼며 생활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매월 중단 없이 구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신앙도 자라고 있습니다.”라며 감사해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도 신대방 2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 6곳과 복지관 2곳에 쌀 70포대와 전남 장성군 남면 주민 15명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성군 남면 마령리에 거주하는 조인순 할머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19)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축복을 받아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을 풍성한 열매로 거두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 퍼센트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나 현실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믿음이지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신다 해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82년 교회 개척 당시,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저는 반드시 그대로 될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장차 세계를 이룰 것이라”,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는 대성전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지요.

그 당시 아직 창문에 유리도 달지 않은 10여 평의 조그만 성전에 어린아이를 포함한 13명이 모여 허름한 강대상을 놓고 개척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단돈 7천 원을 가지고 시작해 무더운 여름임에도 선풍기 하나 없었고 마이크, 피아노 등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니 성도님들과 같이 땀 흘려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간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마음에 새기며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온전히 믿어드릴 때, 그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다면, 마땅히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홍해를 갈랐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지 않았다면 추적하는 애굽 군대에게 붙잡혔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멈추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출 14:21~30 ; 수 3:14~17).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셔서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을지라도 직접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 주셨고,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신 말씀들이지요. 요한일서 3장 21~22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충성하며 뜨겁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혈기를 내거나 상대방에게 감정을 품기도 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죄악을 벗고 충성하는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축복의 약속을 믿는다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구해야 합니다(겔 36:37). 그리고 불같이 기도해 나갈 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방법론을 주시지요.

우리 교회는 식언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 행함으로 나타내 왔습니다. 일찍부터 많은 주의 종을 양성하고, 기독 문화의 중요성을 알아 찬양, 무용 등의 예능팀과 오케스트라를 키웠으며, 방송의 중요성을 깨달아 방송 선교를 위해 투자하는 등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재정, 인력 등이 워낙 갈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세계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을 다해 이뤄졌습니다. 만일 “여력이 있을 때 준비하고, 당장은 능력이 되지 않으니 할 수 없다.” 하고 손을 놓거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저 되어가는 대로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과 같이 세계를 이루는 열매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행해 왔기에 지금은 1만 1천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믿음으로 강물을 밟고 건너는 행함은 사람의 몫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행해 나가니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거두기까지’ 인내하며 변함없는 믿음과 행함을 내보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행함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두기 위해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변개함 없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단지 여리고성 주변을 돌게 하셨습니다. 열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철벽같은 성이 그 주변을 돈다고 해서 무너질 리 없고, 더구나 훈련받은 군사도 아닌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불평불만 없이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칠 일이라는 날 수를 채우고, 칠 일째에 일곱 바퀴를 돌아서 총 열세 바퀴를 다 돌았을 때 비로소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수 6:1~21).

하나님께서 단번에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셨음에도 이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온 백성의 하나님 된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여리고성이 결코 무너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사에 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놓치지 않았던 야곱처럼(창 32:24~32) 마지막 순간까지 변개함 없이 믿음과 행함으로 심을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기도하며 행한다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이뤄지지 않는 것 같으면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조차 잊어버린 것이지요. 또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오히려 기도한 것과는 반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로써 지금까지 행함으로 쌓아 온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도에 변질되어 포기해 버리면 그 전까지 아무리 열심히 심었다고 해도 열매로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개척 이후 변함없이 축복의 언약을 믿고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 가운데 완전히 죽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오해와 모함 속에서 교회의 명예가 훼손되고 성도님들이 핍박받는 등 그전까지 이뤄온 성과조차도 허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오직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실함으로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를 극적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이

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승리했고 이후 큰 영광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한 단계 성장한 믿음 속에서 영육 간에 축복을 받아가며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자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었지요. 그 숭한 연단의 세월 속에서 포기해 버렸거나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낙심해 버렸다면 결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을 때에도 그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여리고성을 끝까지 돌아서 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믿고 행하되 변개함 없이 행할 때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 가십니다. 또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그만큼 크기에 시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정녕 믿음으로 행해 왔다면, 현실적으로는 잠잠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요. 정하신 때가 이르면 순식간에 일이 진행되어 오늘날까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내일은 응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의 때를 맞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온전히 믿고 행하며 끝까지 변개하지 않으므로 거두는 모든 과정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항상 의뢰하여 그대로 행해 나가심으로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이 삶 가운데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며,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애하는 이재록 목사님께

저는 아르헨티나 탄달 지역에 사는 소라자 곤잘레스입니다. 라틴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학장이신 마르틴 목사님을 통해 만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머물게 된 저는 마르틴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제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마르틴 목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방광 수술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아서 소변이 상처부위로 새어 나와 고생하던 중, 엔라씨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는 수술 부위가 잘 아물어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며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성경이 참임을 증거하심으로 무수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회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겠다는 간증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의 종이라는 사실에 저도 기도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수년 전부터 셸리악병(몸 안에 단백질 물질인 글루텐을 처리하

는 효소가 없어서 생기는 질환)과 만성 빈혈로 인해 늘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추위를 느꼈으며 걸을 때는 심장 박동이 빨라져 쉽게 지쳤지요. 이로 인해 철분, 엽산제를 복용하며 정맥 주사를 맞았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는 경제적인 상황과 딸을 간호하느라 약마저 복용하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저는 화상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설교 후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놀랍게도 몸의 모든 증상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19일 병원 정기검진 결과, 정상이었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이재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1. 23. 아르헨티나에서 소라자 곤잘레스 성도 올림.



엔라씨(Enlace) 방송은 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사로 중남미 코스타리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위성, 케이블, 공중파 방송을 통해 북미, 중남미, 유럽 지역 등 전 세계 약 60개국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2007년부터 GCN방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이 매주 1시간씩 방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축복받을 뿐 아니라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응답받는 등 간증이 넘쳐나고 있다.